

한국문화교류 소식

18호 2015년 12월 15일 발행 • 발행인 조남철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121-813 서울시 마포구 삼계로 20 근신빌딩 별관 201호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칼럼

역사전쟁 속에 꽃피는 한류와 한국문화



김길남

ICKC 고문, 전 단국대 초빙교수

과거의 사실과 기록이 역사로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특정 집단이나 국가의 이익을 옹호 내지 증대하기 위하여 본질을 왜곡하거나 사실을 변조하는 행위를 '역사침략'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역사는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과 일본의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設)'로 심각한 침략을 받고 있다. 중국 공산당 서열 7위의 직위에 있는 자가 원장으로 있는, 국무원산하 중국사회과학원 변방

사지연구중심(邊疆史地研究中心)이 진행하고 있는 역사 침략의 내용은 고조선은 물론 북부여와 동부여 그리고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하고 이를 합리화 하는 일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동북3성의 사회과학원에서 고조선에서 발해에 이르는 역사를 중국사로 합리화하기 위해 출간한 문헌책자가 200여 권이 넘고, 관련논문만 수 천 편에 달한다. 일본의 검인정 왜곡 역사교과서를 지탄하던 중국이, 발해사를 중국의 지방 역사로 기술한 교과서를 출간하여 배포·사용하고 있다. 억지로 이론을 구성하고 자료 역시 부족하기 때문에, 다민족국가였던 고구려의 경우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하기 전까지는 중국사이고 평양으로 천도 후에는 한국사의 일부라는 이론도 중국 내 일각에서는 등장하고 있지만, 만리장성은 고무줄처럼 늘어나 그 동쪽 끝을 기존의 산해관이 아니라 대동강 하류까지 연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동북3성은 일본이 1909년 청·일 간도협약을 통해 불법적으로 얻은 조선 영토인 북간도와 서간도에 해당되는 땅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사를 사실대로 지키는 권리를 역사주권이라 한다면 역사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역사주권의 정체성을 바로잡는 것이다.

1854년 요코하마 항구에서 미국의 페리 제독을 영접하며 개항한 일본은 부강입국(富強立國)을 위하여 정부 구조를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제로 개편하고, 무역적자 해소를 위하여 조선정벌을 위한 정한론을 제기하면서 조직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일본은 조선정벌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 일본이 대가야를 정복하고 '임나일본부'를 설치하여 200년 이상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학설로 정착시키려 했다.

이를 위해 일본은 먼저 단군조선은 구전되는 신화일 뿐 한국 역사는 위만조선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하여, 한국인들에게 식민사관이 정당하다는 의식을 심으려 했다. 한국 역사는 그 출발부터 식민지로부터 출발했다고 역사를 왜곡하려 한 것이다. 또한 일본은 임나일본부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경상북도와 전라북도의 대부분을 지배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공을 받는 관계로 백제와 신라, 고구려까지 지배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120년 전에 조선 정벌을 목적으로 시작한 역사조작품인 임나일본부설을 근거로 제작한 교과서에 대해서도 한국정부의 시정요청을 묵살하고 있다.

일본의 정한론에서 출발한 한국 고대사 고조선 부분의 변조내용을 중국은 동북공정에서 상당부분 활용하였다. 동북공정에 의해 왜곡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조선이 중국사로 편입되어 국조(國祖)인 단군할아버지가 중국인이 되며, 한강 이북 고구려의 모든 강토(疆土)가 중국의 영토가 되는 것이다. 한편 일본의 황당한 '임나일본부설'에 따르면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모두가 일본의 식민지이며 우리나라는 충청도와 강원도 일부에 불과한 꼴이 된다. 이와 같은 역사 침략의 왜곡된 실체를 우리가 입증하지 못하면 동북공정과 임나일본부의 이름으로 조작된 내용이 역사로 굳어져 자랑스러운 우리역사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역사주권을 침탈할 뿐 아니라

터무니없는 이론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며 영토주권까지 침략하고 있는 형편이다. 영토주권의 수호와 방위가 국방의 뿔이라면 역사주권을 회복하고 지키는 일은 역사학계의 몫이다. 세계화시대, 정치·경제 분야의 시급한 현안 때문에 역사주권과 영토주권 분쟁을 미래세대로 미루는 것은 역사교과서를 왜곡하여 역사주권 분쟁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문화란 사회사상, 가치관, 행동양식 등의 차이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되지만, 일반적으로 오랜 세월 축적된 민족 집단의 지혜로 정의할 수 있다. 문화(Culture)의 어원이 Cultivation(경작)의 파생어이듯, 문화의 생성과정은 뿌리 깊은 역사를 토양으로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문화란 역사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찬란한 한국 역사가 있었기에 지금의 자랑스러운 한국 문화 역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역사가 현재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동북공정'이나 '임나일본부설'로 찬란한 우리역사의 기록을 아무리 변조하여도 역사적 사실은 결코 변조될 수가 없지만, 기록으로 남는 역사는 변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 열풍은 동남아에서 출발 하여 유럽과 북미대륙을 거쳐 땅 끝 남미대륙까지 물결치고 있다. 외부의 역사침략과 내부의 역사논쟁으로 얼룩진 오늘의 참담한 현실에도 불과하고, 지금 아름다운 한국문화의 꽃으로 피어난 한류는 세계의 젊은이를 열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를 사실대로 지키는 권리를 역사주권이라 한다면 역사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역사주권의 정체성을 바로잡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동북공정'과 '임나일본부설'이라는 역사 침략으로 역사영토의 대부분을 잃고도 역사 주권의 정체성도 확립하지 못한 채 격렬한 역사논쟁만이 사회를 흔들고 있다.





태권도 정신과 공동체주의



Peter Ha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교수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또한 한국 문화를 배우려는 한류(韓流)의 열풍이 뜨겁다. 처음에는 영화와 드라마 등을 통해 한국문화가 아시아권에서 널리 알려졌으나, 이제는 한류가 K-POP, 한식 그리고 패션으로까지 확대되었으며 그 영향력이 아시아권을 벗어나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한류의 열풍을 이야기할 때 주로 영화나 K-POP을 언급하지만, 사실 한류의 원조는 태권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전통무예인 태권도는 한국인의 몸짓과 정신 그리고 문화를 세계인에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문화유산이다. 태권도는 이미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시범종목으로 선정되었고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됨으로써 한국을 알리는 명실상부한 국제 스포츠로 자리매김했다. 더 나아가 이미 1960년대에 태권도 시범단이 발족되어 월남전을 계기로 하여 동남아시아권 나라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임으로써 민간 외교와 국위선양에도 큰 기여를 했다. 그런데 사실 태권도를 세계에 알림으로써 국위선양에 이바지 한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태권도 사범들이다. 특히 전 세계의 어떤 나라에서보다 미국에서 태권도 사범들의 노력이 두드러졌고,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태권도 역시 널리 보급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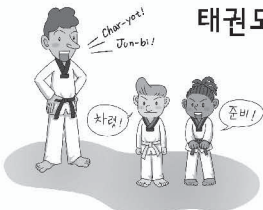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건너간 이준구는 이미 1958년에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에 태권도 아카데미를 열어 유학비를 벌며 태권도를 보급했다. 이후에 그는 1962년 워싱턴에서 준리 태권도 도장을 개관하여 사업가, 교수, 정치인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며 유명인사가 되었다. 이 외에도 미국 태권도 협회를 설립한 이행웅 사범은 미국 전역에서 3만 명의 제자를 길러냈다. 이 제자들 중에는 많은 유명한 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인사들은 빌 클린턴, 조지 부시,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이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 태권도는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태권도 정신이 미국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태권도 정신과 미국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적인 가치가 있다. 이 가치란 다름 아니라 개인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 또는 공동체 또한 중요하다는 의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통적인 가치는 국가에 대한 충성 서약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모든 태권도 수련자들은 수련하기에 앞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의무적으로 한다. 태권도 수련자들이 국가에 맹세를 하는 것처럼 미국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국가와 국기에 대한 충성서약(The Pledge of Allegiance)을 의무적으로 한다. 1960년대 팽배한 자유주의의 분위기에 따라 충성서약은 정부가 어떤 특정종교를 인정함으로써 유대-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국외 자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있는 후 점차 자취를 감추어 갔다. 하지만 2001년 9·11 테

러 이후 돌아오른 애국적 감정으로 많은 주들이 공립 학교에서 충성서약 암송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현재 미국 50개 주 중 절반 정도가 공립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충성서약을 암송하도록 장려함으로써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 의식을 고무시키고 있다. 공동체 의식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에 팽배해 있는 개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 미국에서 장려되고 있는 공동체 의식이 바로 태권도에서 강조되는 수련정신이다. 태권도 정신은 남에 대한 예의나 국

기를 강조함으로써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주의를 경계한다. 더 나아가 태권도 수련에 앞서 수행되는 국기에 대한 맹세는 수련생들에게 개인의 안일만을 생각하기보다는 국가나 공동체의 중요성을 자각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그러므로 태권도 정신은 개인주의로 점점 파편화되어가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이와 같은 공동체 의식을 드높이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태권도의 정신적 가치는 한층 더 높히 평가받을 것이라고 예상해 본다. 

 기사로 보는 태권도 · 한국어 소식 



태권도

시리아 난민촌에 태권도 아카데미 개관

세계태권도연맹(WTF)은 12월 1일(현지시간) 요르단의 시리아 난민촌인 자타리 캠프 내에 WTF 태권도 아카데미를 열었다. 태권도 아카데미 개관은 세계연맹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 태권도박애재단(Taekwondo Humanitarian Foundation)을 공식 출범하기에 앞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온 것이다. 이날 개관식에는 조정원 총재와 요르단 마프라크 주지사인 아마드 사마라 알주베이, 최홍기 주요르단 한국대사 등이 참석했다. 조총재는 “WTF 태권도 아카데미가 난민들 삶의 질을 높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관식에서는 WTF 태권도 시범단의 시범공연도 펼쳐졌다. 이들은 현지에서 4명의 지도 사범을 선발해 교육하는 임무도 함께 수행한다. WTF는 내년 1월에는 지진피해를 본 내팔에 시범단과 사범을 파견할 계획이다.



태권도 아카데미 개관식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조정원 WTF 총재

출처_ 연합뉴스 2015. 12. 02.



한국어

미국서 한류 붐 타고 세종학당 한국어 수업 각광

미국에서 K-팝과 영화·드라마 등 한류 붐을 타고 한국어 수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어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은 현재 전 세계 54개 국가, 138곳에 설치돼 외국인 4만여 명이 우리 말과 글을 배우고 있다. 미국 내 세종학당 1호인 로스앤젤레스(LA) 한국문화원 부설 세종학당에서 진행되는 한국어 수업은 그동안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지난 1995년 1개 반 학생 6명으로 시작해 현재 10개 반 학생 350여 명이 수강 중이다. 세종학당 책임자인 노승환 LA 한국문화원 부장은 “한류 열풍에 따른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한국어 학습 수요로 연결되고 한국어 학습이 다시 한류를 확대 재생산하는 선순환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_ 연합뉴스 2015. 10. 18.

민족교육의 터전에 떠오르는 별



김명선
통하현 조선족학교 교장

중국 하얼빈 시에서 235km 떨어진 편벽한 산간도시 통하현에 위치한 통하현 조선족학교. 현재 내가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곳이다. 하얼빈은 중국에서도 가장 추운 지역으로 꼽힌다. 겨울철 평균 기온이 영하 20℃에 달하며, 무려 영하 40℃까지 떨어지는 날도 허다하다. 이 추운 날씨만큼이나 통하현 조선족학교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까지는 많은 시련이 있었다. 폐교 위기를 용케 넘어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의 우여곡절과, 또 그만큼 크게 느꼈던 교육자로서의 보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나는 1989년 한족 소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교육자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조선족이 한족 학교의 교사가 된다는 것은 꽤나 드문 일이었다. 그러다 2005년, 내 모교이기도 한 지금의 통하현 조선족학교로 옮겨 왔다. 1956년에 건립된 통하현 조선족 학교는 그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줄곧 헤이룽장성(黑龍江省, 흑룡강성) 내에서는 우수한 민족학교로 꼽히기에 손색이 없었다. 큰 자부심으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며 지도했고, 3년 후인 2008년, 개교 이래 처음으로 여자 교장으로 임명되었다. 부담감도 컸지만,

내 손으로 모교를 우수한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또한 무척 기쁘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학교는 여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조선족학교의 학생 수 감소였다. 조선족은 더 나은 삶을 찾아 베이징 등 큰 도시 혹은 한국으로 많이 이동했다. 이에 따른 농촌 붕괴 현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또한 조선족 부모들은 언제부턴가 자녀를 조선족학교가 아닌, 한족학교로 보내기 시작했다. 중국의 보통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한어(漢語) 능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에 관심이 많아진 조선족 부모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했다. 더구나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해 중국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조선족 학생 수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있다. 그러니, 시골 학교는 통폐합되는 경우가 많았고, 통하현의 경우에도 5개의 조선족학교가 문을 닫고, 통하현 조선족학교만 남은 상황이었다.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2008년 당시 우리 학교도 문을 닫느냐 아니면 살아남느냐 하는 불안 속에 떨고 있었다. 통하현 23만여 명의 인구 중 실제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은 근근이 2000여 명에 불과했다. 특히 젊은이들의 수 역시 급격히 줄어들어 결혼이나 출산 소식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학교의 학생 수는 겨우 48명에 불과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학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더 크게는 조선족의 전통과 문화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학교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내가 먼저 나서야 했다. 학교의 본질은 '교육'에 있기에,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한다면 자연스럽게 학생이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무엇보다 교

육 방안 개선에 힘을 쏟았다. 우선 한족 학생을 받아들였다. 심각한 농촌 붕괴 현실에서 소수민족으로서 조선족이 살아남는 방법은 '고립'이 아니라 한족과의 폭넓은 '관계'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그에 따라 조선족 학생과 한족 학생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조선어, 한어, 영어, 일어를 모두 가르치는 '4중 언어 교육'을 실행했다. 조선족 학교에서는 보통 조선어로만 교육이 이루어졌었고, 선생님들 역시 조선어만 아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조선족학교에서 공부한 한족이 한국어를 배워 한국으로 진출할 수도 있고, 조선족 학생 역시 한어 실력을 갖추어서 중국 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9년제 기숙학교인 학교의 이점을 살려 미술, 무용, 음악, 습작, 구연 등 다방면의 장기를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과외활동을 안배하는 데도 힘썼다.

발전 을 위해서는 변화가 불가피했다. 기존의 것들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힘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변화의 결과는 꽤나 성공적이었다. 48명이었던 학생은 160여 명까지 늘어났다. 우리학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 방침이 여러 학교와 인근 사회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입학 문의도 많아졌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돌잔치, 환갑잔치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교원 및 교장이 직접 찾아가 학교를 홍보하고 학생을 모집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학생 대부분이 가난한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입학 후 그들이 큰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재정 마련을 위해 사회단체 등에 후원을 요청하는 것도

소홀하지 않았다. 이런 노력이 적잖이 보상을 받아, 현재 통하현 조선족학교는 처음의 폐교 위기에서는 많이 벗어난 상태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농촌 붕괴 현상이 계속 진행 중이며, 인구 역시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이상, 학교의 위기는 반복될 것이다. 근본적인 사회 환경의 변화와 각계각층의 지원 없이는 힘에 부치는 것이 사실이다. 학생 수도 늘고 학교의 시설도 많이 개선되었지만, 교재 및 교구도, 이를 잘 활용해 줄 선생님도 여전히 부족하다. 한국에서 교생 선생님들을 파견해 주거나, 교구나 책을 지원해 줄 수 있다면 더없이 감사하겠다. 그러나 당장 이뤄질 수는 없기 때문에,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언제나 그랬듯 지금처럼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통하현 조선족학교는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언제든지 문을 닫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항상 학교를 내 집 삼아, 학생들과 함께 숨 쉬고 있을 때면 세상의 행복을 독차지한 듯 행복하다. 하얼빈의 혹독한 추위만 큼이나 학교를 일으켜 세우기까지 많은 시련이 있었다. 그러나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학교의 전 구성원이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학교의 '위기'도 눈 녹듯 사라질 때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늘 "신화는 없다. 하늘에 별만 있으면 나는 딸 자신이 있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내 이런 신념이 학교를 발전시키는 데 쓰일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조선족의 전통과 문화를 지켜 조선족의 미래를 보존하고, 더 멀게는 한국과 중국의 우호 및 양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나는 오늘도 작은 시골학교의 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



통하현 조선족학교의 수업 모습



조선어문 낭독, 낭송, 이야기경연대회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 소식

■제10회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사례 공모전 시상식

본회가 후원한 '제10회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사례 공모전' 시상식이 12월 1일(화), 경희대학교 청운관에서 열렸다. '대상'은 조성효(카자흐스탄) 선생님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차지했고, 본회 이사장 상인 '우수상'은, 한글학교가 없는 포동 지역에 학교를 만들어 민족·모국어 교육을 실천한 내용을 담은 민명홍(중국) 선생님의 '여우야 여우야, 토요일에 너는 뭐하니?'가 수상하였다.



■ICKC 문화탐방

• 9월 22일(화), 국립한글박물관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옆에 자리한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하였다. 2014년 10월 9일에 개관한 국립한글박물관은 최신의 시설과 알찬 내용의 전시로 우리 민족 최고의 문화유산인 한글의 우수성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 10월 20일(화), 창덕궁 후원

'비원(Secret Garden)'으로도 잘 알려진 창덕궁 후원을 방문하였다. 후원은 여러 아름다운 정원, 영조와 정조가 직접 쓴 현판 등 조선시대 여러 왕들의 자취, 옥류천 등 쉽게 볼 수 없는 비경으로 가득했다. 가을을 만끽하며,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음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 11월 17일(화), 꼭두박물관

'꼭두'란 전통상여를 장식했던 인물, 동물 등의 형상물로서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잘 보여주는 전통문화유산이다. 본래 대학로에 위치한 박물관의 신축이전 관계로 복촌 한옥에서 임시 개관 중이지만, 우리 문화유산인 '꼭두'의 의미를 되새기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2015 후원하여 주신 분

2015년,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강재근, 구병진, 김건길, 김동현, 김명수, 김성열, 김소진, 김영규, 김용구, 김용준, 김원갑, 김응철, 김정민, 김정부, 김정일, 김정택, 김종근, 김진원, 김진태, 김호일, 문영호, 박관용, 박경명, 박송이, 박신재, 박원출, 박평식, 서승현, 서형숙, 성효동, 위호인, 이대근, 이병욱, 이상철, 이석중, 이영섭, 이용선, 이정남, 이정우, 이창걸, 이한설, 이향구, 이헌목, 전영섭, 정범식, 정순영, 정영숙, 정진화, 정현관, 조두연, 조춘연, 조평규, 최준영, 표재순, 홍경자, 홍계화, 황경애, (주)세협엔터프라이즈, (주)수풍산업, 신한금융지주회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가나다순, 2015년 12월 9일 현재)

총액 : 45,190,000원

어울사랑 송년음악회와 함께 하는 'ICKC 송년회'

2015년도 끝자락에 접어 들었습니다.

올해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ICKC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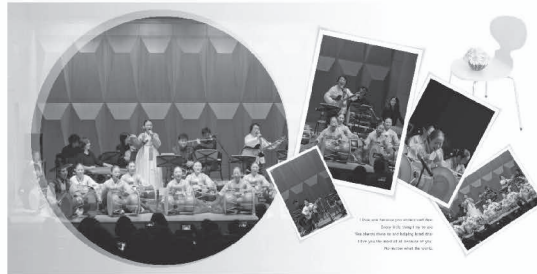
금년 'ICKC 송년 행사'는 본회에서 문화진흥사업으로 후원하고 있는
'(사)마리소리음악연구원'의 송년의 밤 행사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문화의 멋과 소중함을 함께 느끼며 2015년을 뜻 깊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2016년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실내악단 이병욱과 어울림이 함께하는

2015 어울사랑 송년음악회



일시 : 2015년 12월 28일(월) 오후 7시
장소 : 일신희 (용산구 한남대로 98 일신타워딩 1층 02)790-3364)
티켓 : 전석 30,000원

주최 : 어울사랑 (이병욱과 어울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주관 : (사) 마리소리음악연구원
후원 :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문화유산국민신탁, 일신헌화재단, 마스트바이오
(주)편안텍서, (주)고려E&C, 충청신문, 용기와 중기, 스타라드악기사

문의 : 박종남(010-7213-0088), 황경애(010-6790-4025)

후원금 보내 주실 곳

신한은행 100-027-567461

예금주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본회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 단체(기획재정부공고 제2012-166호)입니다.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법정기부금'으로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해 100%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의해 법인소득금액의 50%까지 전액 손금산입 받으실 수 있습니다.